

데뷔 첫 3안타... 찾았다! KIA 새 안방마님 신범수 “기회 놓치기 싫어요”

KT와 시즌 2차전서 결승타 4타수 3안타 2타점 맹활약 ‘공격형 포수’ 존재감 과시 “절박하게 야구하려고 노력”



결승타, 그리고 3안타. KIA타이거즈안방에도 드디어 햇빛이 비친다. 3옵션이었던 포수 신범수(사진)가 KT위즈와 시즌 첫 시리즈에서 연이틀 선발로 나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다.

신범수는 지난달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KT위즈의 시즌 2차전에 8번 타자 포수로 선발 기용돼 4타수 3안타를 때리며 2타점을 쓸어 담았다.

신범수는 2회말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적시 2루타로 이날 경기의 선취점이자 결승타를 때렸고 5회말 좌전 적시타와 7회말 좌중간 2루타로 공격형 포수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 후 신범수는 “안타를 3개나 칠 줄 몰랐는데 타이밍이 계속 잘 걸려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상대 투수가 변화구를 많이 던진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노렸다. 변화구를 생각하고 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신범수가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때려낸 것은 2018년 프로 데뷔 이후 네 시즌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올 시즌 11경기에 나서 27타수 7안타, 타율 0.259로 한승택(37경기 타율 0.137)과 주효상(19경기 타율 0.063)까지 KIA의 세 포수 중 가장 눈에 띄는 공격 지표를 자랑하고 있다.

신범수는 타석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스윙을 어이없이 하지 말고 항상 후회 없이 돌리자고 생각한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기 스윙을 돌렸다는 생각이 들게끔 타석에 임한다”면서 “오늘 쳤던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일 또 나가면 오늘같은 모습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수는 올 시즌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도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화전에서 타석에 들어서 파울 홈런을 친 뒤 2루수 땅볼에 전력 질주 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까지 하며 내야 안타로만 들어내는 투지를 선보였다.

그는 “코치님께서도 1루에서 슬라이딩을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꼭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며 “저도 모르게 슬라이딩을 했고, 항상 땅볼을 치더라도 전력 질주하는 습관을 들어서 그렇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언젠가는 퇴보된다”며 “절박하게 야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기회가 온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1군 주전 포수 자리를 꿰찬 신범수의 목표는 확고하다. 신범수는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1군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라며 “항상 후회 없이 1군에서 야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는 순간이 조마조마하지 않고 설렌다”며 “오늘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다. 다만 경기에 들어갈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들어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약바리 근성을 지닌 ‘3포수’의 주전도 전장에 김종국 감독의 안방 고민도 조금은 가벼워진 모양새다.

어제의 활약을 잊고 내일의 활약을 다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주전 포수에 대한 기대감이 모인다. **한규빈 기자**



김종국 “이길 수 있는 경기 못 이긴 것 아쉽다”

5월 21경기서 10승 11패 공동 5위... 승차 7경기 연승에도 승패 마진 '-1' 6월 전력 강화·반등 기대



각한다”고 아쉬움도 함께 드러냈다.

KIA는 지난 4월 23경기에서 12승 11패(승률 0.522)로 공동 5위에 올랐다.

당시 1위였던 롯데디자인츠와 승차도 2.5경기로 바짝 추격했다.

그러나 이번 달 21경기에서 10승 11패로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더 많았고, 순위는 공동 5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2승 22패(승률 0.500)로 현재 1위인 LG트윈스와 승차도 7.0경기로 벌어졌다.

김 감독은 6월에 대한 구상도 살며시 드러냈다. 특히 투타의 주축으로 활약 중인 최형우와 임기영에 대해서도 꾸준한 활약을 당부했다.

김 감독은 “최형우가 최근 몇 년 동안 자질구레한 잔부상이 많았다. 게임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는 준비도 빨랐지만 특별

한 부상이 없고 스윙 자체가 전성기 못지 않게 잘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윙이 잘 되니까 잘 맞춰서 잘 하고 있다”며 “삼성에서 타격왕 했을 때나 KIA에 와서 첫 시즌 못지않게 스윙을 강하고 세게 돌리는 것 같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고 부연했다.

임기영에 대해서는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그렇고 투구 수에 비해 이닝 소화 능력이 너무 좋다”며 “2이닝을 손쉽게 막아주는 것 같고 불펜 보직이 처음인데도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는 기영이가 나가서 기대대로 해주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KIA는 6월 들어 전력 강화와 함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외야수 최원준이 상무에서 군 제대를 앞두고 있고, 부상 중인 나성범과 김도영의 복귀도 속도를 보이고 있다.

퓨처스 팀에서 재정비 중인 ‘1선발’ 손앤더슨을 비롯해 김기훈과 김대우, 정해영, 주효상, 황대인 등도 반등에 성공한다면 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한 남자’ 김종국(사진) 감독이 5월의 소회를 밝혔다.

무덤덤한 표정에도 5할 승률 복귀에 대한 기쁨보다는 한 달간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김종국 KIA타이거즈 감독은 지난달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위즈와 시즌 2차전에 앞서 “선수들이 너무 잘 해줬다”며 “부진한 선수도 있고 잘했던 선수도 있지만 5월을 잘 버텨줬고, 큰 부상 없이 선수들이 잘해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다만 “4월 승패 마진이 +1이었는데 5월은 -1이다”며 “지난 주도 조금 아쉬웠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긴 경기가 많이 아쉽다. 4월보다 좀 더 아쉽지 않았나 생



챔스필드 찢은 광도규의 투심

KIA 광도규가 지난달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위즈와의 경기에서 투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T전 8회초... 2K 퍼펙트 피칭 14구 모두 투심... 최고 149km 전광판엔 152km... 팬들 환호 “더 성장 위해 열심히 하겠다”

‘싸움닭’ KIA타이거즈 투수 광도규가 1군 복귀전을 완벽히 마무리했다. 삼진-땅볼-삼진의 1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관중들의 박수갈채 속에 임무를 완수하며 불펜 경쟁에 새롭게 불을 지폈다.

광도규는 지난달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KT위즈의 시즌 2차전에 8회초 구원 등판해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광도규는 1일 KT와 시즌 3차전을 앞두고 “타자와 빨리 싸워서 이기는데 집중했다”며 “제 투구 밸런스를 신경 쓰면서 가운데를 보고 던지자고 생각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전날 경기를 복기했다.

광도규는 전날 경기에서 14개의 투구 모두 투심을 택했다. 전광판에는 최고 152km(방송사 기준 149km)가 찍혔고 관중들과 중계진, 덕아웃까지 온 경기장이 술렁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구속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투구할 때 부족했던 동작이나 보완해야 될 동작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고쳤고, 그 부분이 구속으로 연결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범수 형이 점수 차가 큰 상황에서 구위가 좋으니까 투심만 써도 잡을 수 있다

고 리드를 해줬다”며 “투심 구위를 타자들에게 보여주고 커브를 쓰면 그게 더 효과가 커질 수 있고, 저 역시도 자신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광도규는 이날 등판 전까지 퓨처스에서 한 달 반 동안 구위 재조정 시간을 보냈다. 퓨처스리그 출전에서는 11경기 12이닝에 나서 평균자책점 0.00으로 ‘미스터제로’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는 “손승락 감독님께서 항상 오늘의 밸런스를 오늘의 싸움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며 “이번 경기에서도 새로운 밸런스를 새로운 투구를 신경 쓰면서 가운데를 보고 던지자는 생각으로 던졌던 것이 저와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제 광도규의 시선은 1군 불박이를 향해 간다. 그는 “2군에서 타자와 싸우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목표가 맞춰져있었고 1군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1군에 오래 있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다짐했다.

또 “지난번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주변 소리가 멍하게 들리고 뭔가 울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포수 미트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집중을 했지만 공이 들어간 다음에는 환호성이 잘 들렸다.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좌완 왕국’ KIA에 또다시 등장한 새로운 좌완 광도규가 불펜의 한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규빈 기자**

광주FC, K리그1 15라운드 ‘최고의 팀’ 선정

티모·아사니, 베스트11 선정 전남 추상훈 K리그2 베스트11



무승의 늪에서 완벽히 탈출한 광주FC가 K리그 1 15라운드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았다. 광주FC는 지난달 31일 한국프로 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원큐 K리그 1 2023 15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앞서 광주FC는 지난달 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완승을 거뒀다. 광주는 이날 5월 들어 첫 승리의 기쁨을 맛봤고, 7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서 탈출했다. 또 5승 3무 7패(승점 18)를 기록하며 파이널 A 진입권인 6위 대구FC와 격차를 1경기로 좁혔다.

이날 승리의 주역인 티모와 아사니는 각각 베스트 11 수비수와 미드필더에도 이름을 올렸다. 티모는 이날 경기에서 강력한 대인방어와 노련한 경기 운영, 정확한 패스와 빌드업 등 무실점 수비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후반 30분에는 침착한 헤더로 팀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렸다. 티모는 이날 득점으로 K리그 데뷔골

을 기록했고, 수훈 갑에게 주어지는 M.O.M에도 선정됐다.

아사니는 지난 3월 18일 인천전 헤트트릭 이후 길었던 득점 침묵을 깬다. 날카로운 크로스와 활발한 드리블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후반 38분에는 강력한 중거리슛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연맹은 15라운드 베스트 11에 대전 레안드로, 대구 에드가, 울산 주만규(이상 공격수), 서울 윌리안, 대전 마사, 포항 고영준(이상 미드필더), 제주 임채민, 서울 이한범(이상 수비수), 포항 황인재(골키퍼)도 각각 선정했다.

한편 연맹은 전남드래곤즈 추상훈을 하나원큐 K리그2 2023 15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에 선정했다.

전남은 지난달 2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천안시FC와 홈경기에서 2-0으로 완승을 거뒀다. 전남은 이날 승리로 5승 2무 7패(승점 17)를 기록하며 9위로 중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추상훈은 이날 경기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돼 후반 28분 침착한 드리블 후 강력한 슈팅으로 쐐기골을 기록했다. **한규빈 기자**